



전북농협-하서농협,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 하서농협(조합장 기세원)과 함께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부안군 하서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행복콜센터에 등록된 돌봄대상자 어르신 가정 3곳을 찾아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증가하는 취약 농업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7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말벗 등 정서적 위로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세원 조합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집을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농업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노후 된 주거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계신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어르신이 늘어가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아람 기자



전북은행,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50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승일)은 3일 전북애향장학재단(이사장 윤석정)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애향운동본부 윤석정 이사장, 전북은행 김태현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어렵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수성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도내 출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학업에 열중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

전북은행 김태현 부행장은 “경기침체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지역인재들이 꿈을 펼쳐나가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북은행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강한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범죄예방 특별 방법 활동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 도동지구대(지구대장 황인용)는 관내 무인점포, 편의점을 대상으로 특별 방법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전국적으로 편의점 살인사건,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행된 활동으로, 범죄 사전 차단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무인점포, 편의점을 방문해 CCTV 작동 중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주 및 직원을 상대로 긴급신고 시스템 신고방법, 범죄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관내 편의점 야간 1인 근무 및 여성 1인 근무업소를 파악해 주변을 탄력순찰 노선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순찰을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병무청, 병무정책 발전 아이디어 공모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병무정책 마련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3년 상반기 병무정책 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공감 병무정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로,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한 제안은 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김아람 기자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되기를 기대”

예수병원-대원제약, 공동연구개발 위한 협약 체결

예수병원(신충식 병원장)은 대원제약과 예수병원 설대위기념동 7층 회의실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및 공동발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분야의 포괄적 상호 협력에 관한 것으로 △대원제약의 개발제품에 대한 임상진입 검토 지원 △예수병원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협력 △임상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의/약학 학습지식 및 정보 공유 △임상시험 관련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등 연례 행사 개최시 상호 협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원제약은 1958년 설립 이래 ‘인류건강의 실현’이라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인류건강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걸어온 제약기업이다.

예수병원 신충식 병원장은 “예수병원의 임상 시험 연구와 대원제약의 의료사업 영역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임상 연구 분야를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양 기관



의 우호적인 협력으로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은 “우수한 의료진 및 인프라 그리고 풍부한 임상경험이 축적된 예수병원과의 본 협약이 지속 가능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임상 연구와 다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협약에는 신충식 병원장 김호권 기획조정실장 이영구 행정사무국장 및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조봉철 김주일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영아 기자

모나리자, 덕진소방서에 마스크 6만매 기증

전주덕진소방서가 지난달 31일 소방서 본서 앞에서 (주)모나리자와 마스크 기증식을 열었다.

(주)모나리자의 이번 마스크 기증은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감염 우려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마스크는 총 6만장으로 전주덕진소방서 소방대원의 구급 출동 등 현장 활동 시 활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줄곧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3월 20일부터는 병·의원, 일반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 구급대원은 현장 활동 시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주)모나리자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소방대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16,620매를 기증한 바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주)모나리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기증해 준 (주)모나리자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정읍산림조합, 나무·꽃 나누어 주기 행사 열어

정읍산림조합(최봉관 조합장)이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해 지난 4월 1일 정읍산림조합 회관정원 나무시장에서 정읍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톱질(노랑빨강) 2분과 가랑코에 또는 라벤다를 1인당 3분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위해 정읍산림조합에서는 총 3,000본의 꽃나무를 준비했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산불예방홍보 캠페인을 병행했다.

최봉관 조합장은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어느 때 보다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 되는 때이다”면서 “자신의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저감 등 환경문제를 산불예방을 위한 생활 속 안전 수칙 준수에도 모든 시민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 3월 21일 취임한 최 조합장은 합동조합의 성장은 나눔을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눌 수 있



는 꽃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실시했고, 바로 이어 임업기계 무상 A/S 행사와 조경자재마트 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약을 10%~25%까지 할인 행사를 4월 중에 계획하는 등 조합원님들과 정읍시민들에게 다양한 환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완산소방서, 초기진화 더블보상제 운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주택화재 시 초기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대피했을 경우 2배로 지급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서에서는 지난 2월 전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및 대피에 성공해 재산 피해 저감에 기여한 이들에게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한 사례가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18.4%이나,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5.4%로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활용에 적극적인 초기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double) 보상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최대 지급 소액을 6개로 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 및 층별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및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주 유용하다”며 “이번 더블보상제를 통해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아람 기자



전북장애인복지관, 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 실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은 올해 3월부터 장애아동들과 비장애 형제자매 10명을 대상으로 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20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비장애 형제자매와 봉사자의 1대1 매칭으로 집단놀이, 문화체험 등 사회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며,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동아리 ‘도나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된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강병은 관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장애아동과 가족의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고창군, 택시 운수종사자 관광 해설 교육

고창군이 관내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해설 교육에 나섰다.

4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택시기사의 관광서비스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관내 법인·개인택시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미영 문화관광해설사의 ‘고창의 역사와 관광자원’을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는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교육이 관광객들에게 더욱 더 정확하고 폭넓은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질 높은 관광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신뢰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운수종사자분들이 고창을 홍보하는데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정읍참사랑봉사클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정읍시 참사랑자원봉사클럽(회장 정원근)이 지난 3월 31일 김곡면 취약계층 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 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세대로 비가 오면 마당이 질척거리고, 맑은 날은 물통불통에 외출 시 휠체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클럽은 20만 원의 클럽 회비를 지원하고, 회원들은 포크레인 등 장비를 지원해 비포장 마당을 시멘트로 덮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정원근 회장은 “회원들의 재능과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면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재능 나눔을 실천해주신 참사랑봉사클럽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생활 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참사랑자원봉사클럽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정읍·고창 지역의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펼치고 있는 봉사단체다. /정읍=김대환기자



임실군, 우리 쌀 활용 교육 마쳐

임실군이 지난 2월 28일부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진행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쌀 가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실군민 20명이 참여했으며, 임실치즈 쌀 디저트 및 간편식 10종을 조리해보는 실습 교육으로 5주 동안 총 10회 진행됐다.

특히 쌀가루와 임실의 특산물인 치즈를 접목한 레시피는 가정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20대부터 80세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떡뿐만 아니라 케이크나 간편식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며 “아이들 간식은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만족했다”고 전했다.

김승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쌀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소비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다워 실천가능한 우리 쌀 소비 전문 리더 양성 및 다각적인 활용 방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